

광주 주부들 설명절 스트레스 1위는 '돈'

사랑방미디어 284명 설문조사

음식장만 보다 세뱃돈·선물 걱정

“가사일 남편이 안 도와 준다” 54%

설명절, 주부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가사일보다 세뱃돈 및 설 선물 비용 탓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사랑방미디어에 따르면 최근 설을 앞두고 광주지역 주부 2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부들은 '설 연휴,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으로 '세뱃돈 및 설 선물 비용(43%)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이어 '음식 장만(34%)', '친척들의 덕담과 비교(10%)'를 선택했다.

이는 경기 불황이 깊어지면서 수입 대비 지출이 늘어나는 등 팍팍해진 살림살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음식 장만부터 차례상 차리기, 설거지까지 온종일 이어지는 '가사일을 남편이 도와주느냐'

질문에 절반이 넘는 54%의 주부가 '아니다'고 답해 가사 부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사일을 돕는 남편이 더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20~30대 주부 중 남편이 가사일을 돕는다고 답한 비율은 60%였으나, 40~50대 주부들의 응답률은 40%에 그쳤다.

반면 '도와준다'고 답한 전체 46%의 주부는 남편이 '설거지(18%)', '차례상 차리기(13%)', '자녀 돌보기(9%)' 등을 돕는다고 응답했다. '주부들이 설 명절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

일까'라는 물음에는 답이 엇갈렸다. 가장 많은 주부가 '나 홀로 휴식(36.5%)'을 선택했고, '여행(32.5%)'을 떠나고 싶다는 주부도 상당수였다. 이어 '잠자기(13%)'와 'TV·영화 보기(12%)'도 두 자릿수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짧게는 3일 길게는 5일까지 이어지는 명절 동안 '시댁과 친정에서 각각 얼마나 머무느냐'는 질문에는 시댁과 친정 모두에서 '하룻밤을 잔다'는 응답이 각각 52%, 5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그리스 불확실성 완화 설 앞두고 금통위 회의 기준 금리 결정 주목

국내주식시장의 발목을 잡던 그리스 채무협상이 긍정적 변화를 보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합의 소식이 코스피 지수는 1957.50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6년8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608.07로 상승 마감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도 하루만에 4.9% 급등하면서 투자 심리를 안정시켰다.

그동안 대외 악재로 작용했던 변수들이 시장에 희망을 안겨 줄지는 좀더 지켜 봐야겠다. 먼저, 그리스 채무협상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았으나 국제 채권단이 요구하는 구제금융 프로그램과 그리스가 원하는 구제금융간의 격차를 줄이기로 합의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그리스 문제는 16일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가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 수많은 대외변수 중 하나다. 그동안 교전 상태가 지속되면서 유럽연합(EU) 등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평화합의가 도출되면서 휴전에 합의했다. 이로 인해 불안했던 러시아 경제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풀고 루블화 가치가 안정 될 때까지는 면밀히 지켜봐야겠다.

이처럼 투자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대외 변수가 상존해 있지만 각국의 경쟁적인 통화확대정책에 따른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이 심리적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경기회복 징후가 보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특히 ECB(유럽중앙은행)가 계획한 국제매입 등 양적완화가 개시되는 3월이 다가오고 있고 국내에서 연금의 순매수가 주식시장을 뒷받침하고 외국인 투자패턴이 변화하고 있어 글로벌 유동성 장세에 대한 희망도 보인다.

이번 주는 그리스 채무협상과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다. 그리스 채무협상은 큰 고비를 넘긴 만큼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대외 불확실성을 줄여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동결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잇따른 금리인하 정책으로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압력이 강화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중국 관련 소비업종 및 실적 호전압축에 대한 보유 전략과 단기급등 업종에 대한 현금화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김경신
NH투자증권
수원지점 부장

캠코, 설명절 보이콧피싱 주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의 사정을 악용해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를 사칭한 보이콧피싱(대출사기)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15일 당부했다.

최근 보이콧피싱 수법은 더욱 교묘해져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금융회사 대표번호와 유사한 번호(1688-8437-1578-9697 등)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 "00은행에 근무하는 000"라며 이름까지 밝히는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하게 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더욱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캠코가 운영하는 '1397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에 문의된 보이콧피싱 관련 상담 건수도 월 평균 1700여건으로 높은 수준이다.

캠코는 보이콧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잘 모르는 사람에게 공탁금·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하지 말 것 ▲대출신청서류 명목으로 통장·체크카드 및 개인정보가 기재된 재직증명서 등을 보내지 말 것 ▲이들이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금융회사가 휴대폰으로 전송한 인증번호를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도시가스요금 내달 10.1% 인하

정부가 유가 하락을 반영해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대폭 인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소매요금(서울시) 기준 평균 10.1% 내릴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평균 요금이 현행 20.4706원/MJ(가스사용열량단위)에서 18.4130원/MJ으로 2.0576원/MJ(10.1%) 낮아진다.

이 같은 요금 인하폭은 1970년 국내 도시가스 도입된 이후 최대이며, 인하율은 2002년 1월(-12.9%)에 이어 두번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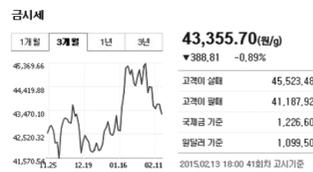
이번 조치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지난해 11~12월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동반 하락한 LNG(액화천연가스) 도입가격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원료비 연동제는 2개월마다 산정된 원료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연합뉴스

골드바 인기 여전하네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골든듀 매장서 청양의 해를 맞아 '양'을 모티브로 한 골드바가 판매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올들어 금값 오르면서 재테크 수단 백화점 골든듀 매출 90% 이상 늘어



최근 금 시세가 오르고 다양한 종류의 골드바가 나오면서 안전한 재테크가 가능한 골드바가 주목받고 있다.

15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연초에 1온스당 1700달러 정도로 금 시세가 높았던 2013년의 경우 골드바 연간 매출이 전년보다 700% 신장할 만큼 금 열풍이 불었다.

지난해 하락세로 돌아선 금값은 12월에 1온스당 1140달러까지 내려갔으나, 올해 들어 1온스당 1240달러까지 오르면서 골드바가 다시 재테크 수단으로 뜨고 있다.

이런 추세가 발맞춰 지난달 초 롯데백화점은 골든듀와 함께 2015년 양의 해 기념으로 양 모양이 들어간 '청양 골드바'를 내놓았다.

기존 골드바는 500g(약 260만원), 1kg(약 530만원) 등으로 용량이 컸지만, 청양 골드바는 37.5g(약 200만원), 100g(약 500만원) 등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가격이 낮다.

롯데백화점 골든듀 매출은 올해 들어 이달 8일까지 전년보다 90% 이상 늘었는데, 이 중 절반이 청양 골드바 매출이었다.

수천만원이 넘는 골드바 대신 최근에는 청양 골드바 같이 비교적 작고 저렴한 골드바로 재테크를 하려는 소비자가 많아졌다고 백화점은 설명했다.

김진엽 롯데백화점 잡화부장은 "최저치로 떨어졌던 금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골드바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요즘에는 재테크 수단을 넘어 선물용으로도 인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원주택지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임야 1084㎡(328평)
- 33필지 중 1필지
- 광덕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 군청) 2015년 5월 완공 예정
- 매매 - 1억3천1백20만원

문의. 010-3605-5000

광주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 광전파크 빌라 5층중 3층 34평
- 정남향, 2013년 신축, 내부 깨끗
- 방 3, 화장실 2, 거실 1
- 신우APT 근처 즉시 입주가능
- 감정/시세 - 1억9천만원
- 급매 - 1억 5500만원

빌라 "급매"

주인 직매 H. 010-3605-5000

베스트 이비인후과 신우신협
신우APT 제5동

오피스텔 매매

- 광주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문의 010-3605-5000

- 17평, 10층
- 20층중 10층, 코너, 전망좋은 주거겸 사무실, 전체 물수리
- 매매 - 5천1백만원

근린상가 "지하"

- 광주 동구 산수동 21-5 남양빌라
- 분양평수 150평(실97평)
- 감정가/시세 - 1억5천만원정도
- 법인체 인수 가능 (이전비 없음)
- 급매가 - 5500만원

현재 경매 진행중!

1/3 가격으로 매매했습니다.

문의. 010-3605-5000